| 현불논단 |

이태원 참사와 共業



방영준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울리히 벡은 저서 '위험사회'에서
"발전되면 위험사회 될 것" 경고
現 위험은 '생산된 위험'란 의미
이태원 참사 역시 '생산된 참사'

업보, 불공업과 공업으로 구분돼
불공업-개인윤리 공업-사회윤리
불공업과 공업, 상호연기적 관계
붓다 설한 사회윤리적 고민 필요

이태원 참사는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의 회오리에 몰아넣었다.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그 트라우마의 상처는 오래갈 것이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지은 〈위험 사회(Risk Society)〉가 생각난다. 울리히 벡은 한국불교에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고, 2008년 봉은사를 방문하여 '무애' 라는 법명을 가지기도 했다.

울리히 벡은 사회가 발전될수록 위험사회가 될 것이며, 그 위험은 지역과 계층과 관계없이 평준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1세기의 위험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된 위험' 이라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는 바로 생산된 참사이다. 지금 지구촌의 문명은 세계화의 틀에서 하나가 되고 있고, 하나의 중심은 서구 문명이다. '핼러윈' 이라는 서양 무속의 축제가 우리나라의 젊은이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도 하지 못했다. 그만큼 필자는 '라떼 시대' 의 사람이고 한국 젊은이의 좌절과 외로움에 둔감한 것이 리라.

이태원 참사는 이 시대에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함께 짊어질 공업(共業)이라고 생각한다. 윤회와 업 사상은 불교 윤리의 제일 기본적인 토대이다. 윤회와 업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보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윤회의 핵심동력이 바로 업이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탐욕,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에 의해 형성된 업의 소멸에 있다.

업은 불공업(不共業)과 공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불공업이란 자신이 행한 행위의 과보는 그 개인이 받는 것이며, 공업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받는 업이다. 공업은 아비달마를 집대성한 〈구사론〉과 〈화엄경〉 등에 등장한다.

불공업은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 즉 개인 의지와 결단에 바탕을 두고 개인의 가치관 정립과 실천에 관심을 둔다.

반면, 공업은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여기서는 사회구조와 제도의 도덕성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정의의 문제가 제기된다.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며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사회윤리적 과제가 제기된다. 불공업과 공업,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서로 연기적 관계에 있다. 그 연기적 양상은 사회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규명이 여러 측면에서 표출되고 있다. 관련 공직자에 대한 과실치사, 업무 태만, 은폐조작 등 다양한 죄목이 거론되고 있다. 언뜻 보면 개인윤리적 차원에서 질책 받을 수 있는 내용도 그 심층을 보면 공업의 성격이 크다. 비도덕적 사회구조가 비도덕적 인간을 만든다고 할 때, 이 사회구조의 개념 속에서는 부도덕하고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과 문화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한다. 이를 '관행적 규율체계' 로서 사회윤리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부도덕하고 불합리한 관행 체계와 문화가 얼마나 뿌리박혀 있는가를 체감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불교는 개인의 선한 업을 강조하는 개인 윤리적 차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한다. 근래에 '깨달음의 사회화' 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수많은 사회적 고통과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무명을 밝히고 극복해 가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선한 공업을 짓느냐의 과제로 연결된다.

불교는 단순한 신앙체계나 박물관에 진열된 골동품이 아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서' 살아 숨 쉬는 것이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불교가 지향할 사회윤리적 가치에 대해 진지한 고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탐진치 삼독의 극복은 개인의 수행 과제이면서 동시에 우리 전체 사회의 수행 과제이다.

社 說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개원에 부쳐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가 첫 개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8대 중앙종회 개원식' 을 봉행하고 제226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기회에서는 5선의원인 주경 스님이 만장일치로 전반기 중앙종회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수석 · 차석부의장에는 무관 스님과 법원(직할)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중앙종회는 상임분과위원장과 위원 등을 선출 · 배정하며 원 구성을 마쳤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사회로 따지면 '국회' 와 같다. 즉, 종헌 종법을 만드는 '입법기구' 이면서 총무원 집행부를 견제하는 행정적 장치다. '입법기구' 로서 제18대 중앙종회가 해야 할 일은 명증하다. 종법 미비사항들을 정비하고 종도들이 원하는 입법 활동을 펼쳐야 한다.

나아가 시대와 호흡하는 불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창의적 의정활동도 요구된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개원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화합을 으뜸으로 하며, 논의하는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가 없이 모두가 합의하는 것을 화합이라고 한다"며 "비록 화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해도 소통 · 협의해 종도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해 종단 발전의 초석을 놓길 바란다"고 설했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의 법어는 제18대 중앙종회가 나아갈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 제18대 중앙종회가 화합과 소통으로 종단 발전과 불교중흥을 이끌기를 바란다. 또한 중앙종무기관 견제기구로서 역할도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상월결사 원력, 불교중흥 이어지길

2019년 11월 11일, 아파트 공사현장에 비닐 천막을 친 아홉 스님은 목숨을 건 정진을 시작했다. 한국불교를 새롭게 하기 위한 대발원이었다. 이러한 상월결사가 3년을 맞았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게송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추니 수미산이 사바세계로구나' 는 수미산이 멀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바세계 한복판이 그곳이라는 일대 선언이었다.

상월결사는 이러한 정신 하에 '불교중흥' 의 대장정을 걸었다. 이와 함께 '국난극복' '세계평화' 라는 사회적 운동까지 전개됐다.

순례에는 108명의 순례단이 한마음이었다. 여기에 순례 현장에서는 전국사찰에서의 성원이 이어졌다. 순례단이 가는 곳마다 박수와 격려가 쏟아졌다.

비가 오면 따뜻한 물과 음료를 챙겨 나온 주민들, 마을회관을 선뜻내 준 농민들, 이 모두가 불교 중흥을 위한 하나의 원동력이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불자들은 불교중흥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본격화된 '평화방생순례' 는 불교가 생동하는 종교로 한걸음 나가아는 모습을 보였다.

순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현장에서의 정진은 수행의 일환이지만 순례 이후에 던져진 메시지는 지중하다. 높게 들어올려진 상월결사의 기치는 계속해서 사회에 펼쳐져 있다.

상월결사 3주년을 맞아 이제는 불교혁신을 위해 다시 스스로 돌아볼 때다. 상월결사 정신을 곳곳에 펼쳐 적극적인 전법 포교행에 나서야 한다. 불교가 살아 숨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수 있도록 원력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국화차 선물

마른 국화꽃이 뜨거운 찻물에 활짝 피어난다. 노란 국화차에 늦가을이 내려앉는다. 짧은 햇살을 아쉬워하는 풀벌레 소리도 녹아내린다. 은은한 차향에서 말수가 적었던 젊은이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는 마른 국화처럼 마음이 메마르면 나의 집을 찾아오곤 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지만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입대하기 전에는 병영에서 자투리 시간에 읽을 책들의 목록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는 군대로 떠나면서 나에게 국화차를 선물했다.

선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의 결합이라고 생각한다. 선물은 단순히 물건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무슨 선물을 좋아할지, 가격이 비싸 뇌물로 오인 받지 않도록 순수한 마음이 전달되도록 한다. 선물을 보낼 때는 가격표를 떼고, 예쁘게 포장해서 정성을 기울인다. 선물을 받은 사람도 가격을 따지지 않고 선물 속에 담긴 마음을 받는다.

혹시라도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답례를 해야겠다는 의무가 따른다거나, 선물을 주는 사람이 돌아올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닌 교환이 되고 만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는 '순수한 선물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한다. 정말 순수한 선물은 불가능할까?



그림 · 최주현

〈금강경〉은 '머문 바 없이 보시하라(應無所住 行於布施)' 고 설한다. 보시를 하는 자신에게 그로 인한 보답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이다. 주었다는 생각 없이 주는 것, 그렇기에 받는 이에게 어떤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교환으로 이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선물이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라는 문구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선물에는 재능이나 지식으로 봉사하는 비가시적인 선물이 있다. 불법(佛法)을 가르치는 스님은 선물한다는 생각 없이 설법하고, 듣는 사람도 선물이란 생각 없이 그저 듣고 배운다. 인간에게 존재의 근원을 깨닫도록 하는 이 법시(法施)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으랴.

무외시(無畏施)라는 보시도 있다. 두려움 없는 마음을 준다는 것은 기쁨이나 편안함을 주는 것을 뜻한다. 화난 사람 옆에 있으면 공연히 불안하고 불편해진다. 하지만 환하게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쁘고 즐거워진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준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 옆에 있는 사람 또한 받았다는 생각 없이 무엇인가를 받은 것이다. 존재 그 자체가 선물인 것이다. 이런 무주상보시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먹는 법
한 포씩 500ml물에 타서 수시로 나누어 마신다
나만의 요리에 조금 뿌려 먹는다
컵에 조금씩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차처럼 나누어 마신다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